

저소득층 가정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 문제행동 간의 상호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송미령, 홍승애*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A Study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n Low Income Families

Mi-Ryoung Song, Seung-ae Hong*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가정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한 아동과 양육자이며, 2015년에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과 양육자를 3년 간 추적 조사하여 2017년까지 참여한 대상자의 자료를 반복 측정 하였다. 연구 방법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발달에 적용하는 아동 효과 및 양육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의 자기회귀 계수가 모두 유의미하여 3년에 걸친 연구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 인과관계의 원인은 주로 양육자 효과로 설명 되었다. 즉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은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해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누적되어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결국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저소득층 가정의 누적된 양육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양육자의 심리적 지원 방안이 강화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mong those participating in dream start service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parental and child effects on child's problem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based on repeated measures from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third grade of elementary school among children participating in dream start services,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applied. As a result, the stability coefficient showed that the two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stable for 3 years. In other words, the measurement was maintained at a similar level with tim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tress and child' s problem behavior was generally explained by the parental effect. In other words, parental stress is related to the child's problem behavio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economic stress of poverty increases parents' parenting stress, which can negatively affect the adaptive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process of raising children.

Keywords : Dream Start project, Behavioral problems, Parenting stress,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longitudinal study

*Corresponding Author : Seung-Ae Hong(Hanyang Univ.)

email: insight2412@naver.com

Received March 12, 2020

Revised April 10, 2020

Accepted June 5,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다. 물론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또래 관계, 사회적 자본 등도 아동 발달과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양육특성은 아동의 발달 및 행동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특성 중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1-4].

양육스트레스는 양육과정에서 유발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양육지원이 부족, 자녀의 까다로운 행동, 양육 역할에 대한 낮은 유능감 등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 지각으로 정의된다[5]. 선행연구에서[6-7] 양육스트레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경험하는 것이며,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8]. 그러나 한편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 경향과 다른 양상을 보여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아동 빈곤 가정 조기개입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에 참여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 조사 결과,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아동에게 화를 내거나 때리는 등 잘못된 훈육방법을 더욱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악순환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영국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양육자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양육자가 양육효능감이 낮고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0]. 우리나라 공적 아동복지전달체계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한 양육자 조사 결과에서도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 하였고[11], 국내 비빈곤 가정과 빈곤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빈곤가정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비빈곤 가정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12]. 또한 한준아[13] 연구에서 양육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양육자의 사회적, 심리적 기능을 손상시켜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어렵게 만들고 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자는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며, 양육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게 되고, 가족 관계의 불안정을 야기하며,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 작용으로 이어져 결국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적인 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13-16].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의 인과성은 주로 양육자에게 있고,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대부분 양육자모의 양육행동 변수는 자녀의 문제행동의 원인 변수로 취급되었으며, 양육자에게 아동에 이르는 일방향적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지배적이다[17-18]. 실제로 양육자와 아동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즉 상호적 영향관계의 순환적 사이클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자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아동 역시 양육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19-20], 양육자-아동 관계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호적 영향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호적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들의 결과들도 뚜렷한 일관성이 없다. Sheehan과 Watson는 어머니의 훈육과 아동의 공격성 간 종단적인 상호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0],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애착과 지도감독 등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종단적 상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양육자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 인과성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양육자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쳤으나 양육자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보았을 때, 단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만 고려해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나 빈곤은 양육자 역할과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의 문제행동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관계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아동의 문제행동 때문인지, 혹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종단의 결과를 분석 해야하는 이유는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업 효과성에 대한 결과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받고 아동의 문제행동이 감소된다는 결과[22]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그 결과를

검증하면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개입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문제행동이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저소득층 아동의 문제행동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의 중단적 관계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아동의 문제행동 때문인지, 혹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즉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행동이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2. 아동의 문제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3.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호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드림스타트사업 효과성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드림스타트사업 효과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하는 99개 드림스타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2015년에 드림스타트 사업 참여자 중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2017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아동을 먼저 선정하고 해당 아동의 양육자를 매칭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다자녀가정의 경우에도 양육자의 응답이 대상 아동과 정확하게 대응하는 형태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2015년도 1차년도에는 아동 923명(남자 481명, 여자 442명), 2016년도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 아동을 추적하여 740명(남자 384명, 여자 356명)을 조사하였으며, 2017년 3차 년도에는 2015년부터 3년간 참여한 아동 580명(남자 299명, 여자 281명)이 조사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아동의 문제행동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Elliott과 Gresham[23]가 개발하고, 국내 연구진[24]이 타당화한 사회기술평저체계(SSRS) 문항 중 문제행동(외현화, 내면화 행동)관련 11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Cronbach's α 계수는 1차년도 .904, 2차년도에는 .918, 3차년도에는 .924로 나타났다.

2.2.2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으며[25],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의 세가지 하위요인으로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평정척도의 응답방식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고통(3문항),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3문항)에 관한 총 6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궤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1차 년도부터 3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년도별 양육스트레스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1차 .845, 2차 .872, 3차 .885으로 나타났다.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중단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M)을 적용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은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같은 변수들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기회귀 모형(autoregressive model)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시켜 두 변인간의 상호지연 효과(Cross-lagger effect)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다[26]. 기초적인 통계 처리를 위해 SPSS 25.0을 사용하였으며, 자기회귀 교차지연분석을 위해서는 Amos 21.0을 활용하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서는 일반적인 통제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지 않는데, 이는 교차지연 분석시 자기회귀가 통제되면서 기타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통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27].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중단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우선적으로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모형을 설정하고 그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다음으로 다수의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어떤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한지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과 2를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동일한 잠재변수의 자기회귀 효과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연구문제 3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다른 잠재변수의 교차지연 효과를 살펴보았다.

종단연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결측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추정 방법을 이용하고, χ^2 와 CFI, TLI, RMSEA 등의 지수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 기준은 RMSEA의 값이 일반적으로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양호한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하고[28], TLI와 CFI의 경우에는 값이 높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29-30]. 자료의 분석단계를 측정모형의 검증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인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고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변수들의 왜도가 2를 넘지 않고, 첨도가 4를 넘지 않아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이 만족되었다.

아동의 문제행동 경향을 살펴보면, 1차 년도에는 2.26점(SD=.81), 2차 년도에는 2.21점(SD=.83), 3차년도에는 2.19점(SD=.82)이다. 이와 같은 변화추세는 엄밀한 통계적 검증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주의 할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의 문제행동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1차 시점 2.26점(SD=.86), 2차 시점 2.21점(SD=.88), 3차 시점 2.19점(SD=.90)으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의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추세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해석 역시 통계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easured Variables

Spec.	1	2	3	4	5	6
1. Behavioral Problems(1st)	1					
2. Behavioral Problems(2nd)	0.44***	1				
3. Behavioral Problems(3rd)	0.41***	0.47***	1			
4. Parenting Stress(1st)	0.27***	0.21***	0.21***	1		
5. Parenting Stress(2nd)	0.23***	0.35***	0.25***	0.42***	1	
6. Parenting Stress(3rd)	0.25***	0.29***	0.39***	0.40***	0.48***	1
Mean	2.26	2.21	2.19	2.85	2.81	2.76
SD	0.81	0.83	0.82	0.86	0.88	0.90
Skewness	0.41	0.46	0.38	0.02	-0.34	0.13
Kurtosi	0.03	-0.01	0.15	-0.20	-0.48	-0.27

*** $p < .001$

3.2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27]에서 각 시점에서 측정한 개념이 동일한 개념에 대한 측정인가를 분석하는 측정 동일성, 잠재변수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성립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저모형과 함께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한 8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각 모형은 내재된 관계이며, 이를 통해 간명하면서 설명력 있는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모형1은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본 모형이고, 모형2는 잠재변수 아동의 문제행동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며, 모형 3은 모형2에 추가하여 잠재변수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4는 잠재변수 아동의 문제행동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5는 잠재변수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고, 모형 6은 잠재변수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변수 양육자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며, 모형 7은 잠재변수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잠재변수 아동의 문제행동의 교차 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 8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2와 모형3은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 모형 4부터 모형 7은 경로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며, 모형 8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다.

위의 8개의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1에서 모형8까지 순차적으로 비교를 하였다. 즉 모형1과 모형2의 비교, 모형2와 모형3의 비교 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에서 카이제곱 차이 검증($\Delta\chi^2$ test)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검증 역시 χ^2 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TLI를 통해 검증하였다. 8개 모형에 대한 최종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Autoregressive Delay Model fit between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and Parenting Stress of Caregivers

Spec.	χ^2	df	TLI	CFI	RMSEA
Model 1	291.267	69	.892	.938	.072
Model 2	301.004	73	.896	.936	.071
Model 3	302.122	75	.899	.937	.069
Model 4	305.289	76	.899	.936	.069
Model 5	306.415	77	.900	.936	.069
Model 6	307.557	78	.902	.936	.069
Model 7	307.727	79	.903	.936	.068
Model 8	307.752	80	.905	.937	.067

측정 동일성 가정에 따라 측정변수 각각의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2와 모형1의 적합도 차이($\Delta\chi^2=9.737$, $\Delta TLI=.004$, $\Delta CFI=-.002$, $\Delta RMSEA=-.001$)를 본 결과, 자유도 4일 경우의 χ^2 값의 임계치가 9.488이므로 이 정도의 χ^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며, 따라서, 모형1과 모형2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가각되었다. 하지만, χ^2 차이 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TLI는 0.004 증가, CFI는 감소량이 0.002, RMSEA는 0.001 낮아졌다. 모형 지수의 변화량에 있어 통계적으로 볼 때, 문주연과 이민규[28]는 TLI가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거나 감소된다 할지라도 감소량이 0.02보다 작을 경우에, CFI가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거나 감소된다 할지라도 감소량이 0.01보다 작을 경우에, RMSEA 값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증가량이 0.015보다 작을 경우에 모형 동일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모형2가 모형1보다 간명성 측면에서 더 우수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머지 모형에 대해 두 개의 모형씩 순차적으로 비교한

결과, 모형3과 모형2의 적합도 차이($\Delta\chi^2=1.118$ ($\chi^2(2)=5.991$, $\Delta TLI=.003$, $\Delta CFI=.001$, $\Delta RMSEA=-.002$)를 통해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4의 적합도는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모형3과 비교($\Delta\chi^2=3.167$ ($\chi^2(1)=3.841$, $\Delta TLI=0$, $\Delta CFI=-.001$, $\Delta RMSEA=0$)했을 때, 모형3과 모형 4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이전 시점의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이후 시점(t)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시점 t와 시점 t+1에 영향력을 주는 정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문제 행동의 자기회귀계수에 제약을 가한 모형 5 역시 모형 4에 비해 적합도($\Delta\chi^2=1.126$ ($\chi^2(1)=3.841$, $\Delta TLI=.001$, $\Delta CFI=0$, $\Delta RMSEA=0$)가 근소하게 좋아져서 아동의 문제행동의 자기회귀 역시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 시점의 교차지연효과(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6($\Delta\chi^2 =1.142$ ($\chi^2(1)=3.841$, $\Delta TLI=.002$, $\Delta CFI=0$, $\Delta RMSEA=0$)과 모형 7($\Delta\chi^2=0.17$ ($\chi^2(1)=3.841$, $\Delta TLI=.001$, $\Delta CFI=0$, $\Delta RMSEA=-.001$)의 적합도가 각각 이전 모형에 비해 근소하게 좋아진 경향이 있어 경로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 8 역시 모형 7과 비교했을 때, $\Delta\chi^2 =0.025$, $\Delta TLI=.002$, $\Delta CFI=.001$, $\Delta RMSEA=-.001$ 로 모형의 적합도가 이전 모형에 비해 좋아졌다. 일련의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통해 모형 8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모형 8은 CFI, TLI 값이 .90이상, RMSEA값이 .067 정도이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다. 이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적합하게 나타난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중단관계 모형 검증 결과, 모형 8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8의 각 경로계수는 Table 3, Fig. 1에 제시하였다.

이전 시점의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 행동은 매 시점마다 이후 시점의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차 회귀계수에 대한 추정치는 두 잠재 변수 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아동의 문제행동은 매시점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두 시점 모두 아동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3. Estimation of Structural Model of Final Research Model

Path	B	S.E.	β	C.R.
Behavioral Problem(1st)→ Behavioral Problem(2nd)	.716***	.032	.679***	22.592
Behavioral Problem(2nd)→ Behavioral Problem(3rd)	.716***	.032	.701***	22.592
Parenting Stress(1st)→ Parenting Stress(2nd)	.465***	.034	.460***	13.674
Parenting Stress(2nd)→ Parenting Stress(3rd)	.465***	.034	.471***	13.674
Behavioral Problem(1st)→ Parenting Stress(2nd)	.097***	.028	.104***	3.406
Behavioral Problem(2nd)→ Parenting Stress(3rd)	.097***	.028	.111***	3.406
Parenting Stress(1st)→ Behavioral Problem(2nd)	-.034	.032	-.030	-1.073
Parenting Stress(2nd)→ Behavioral Problem(3rd)	-.034	.032	-.029	-1.073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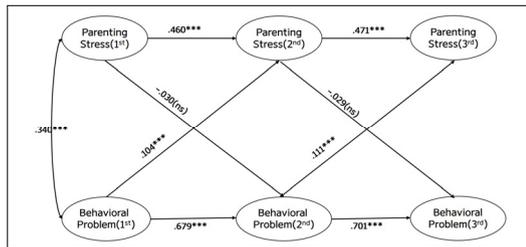


Fig. 1. Path of Final Research Model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 효과, 아동의 문제행동 효과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문제행동의 교차 지연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양육자 양육스트레스(1차)가 2016년 양육자 양육스트레스(2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고, 2016년 양육자 양육스트레스(2차)가 또한 2017년 양육자 양육스트레스(3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 2015년 아동의 문제행동(1차)이 2016년 아동의 문제행동(2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고, 또한 2016년 아동의 문제행동(2차)이 2017년 아동의 문제행동(3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5년 아동의 문제행동(1차)이 2016년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2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아동의 문제행동(2차)이 2017년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3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의 아동의 문제행

동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에서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자 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호적 순환 관계에 기반하여 내용을 고찰하였으며 3회기의 종단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의 자기회귀 계수가 모두 유의미하며,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연구[13, 20]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이전 시점에서 나타난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동은 각각 이후 시점의 수준을 예측하는 매우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인과관계를 고찰한 결과,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가 자녀의 문제행동임을 확인 하였다. 즉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요인 간 교차 지연 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보여준 것이며,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상호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빈곤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악순환적으로 연결되는 아동의 문제행동 자체도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제시한 연구 결과[31]와 일치하며, 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역방향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자의 요인을 지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32]. 다만 일반적으로 양육자는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를 수준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33], 빈곤 가정 부모의 경우 양육효능감이 빈곤 가정 부모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하고 해석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문제행동은 1년 이후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저소득층 가정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호 교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양육스트레스가 감소

하는 경향과 배치되는 것으로[34-36],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자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서도 양육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내재화 문제 및 반사회적 행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양육자 역할 수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정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중단으로 분석하고, 아동의 문제행동과 역동적 상호관계 속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드림스타트 사업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지 않는 경향에 주목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양육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개입 프로그램뿐만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부모교육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양육자 이외에도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심리정서 지원 방안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양육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특성으로 인한 결과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비교를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A. C. Huth-Bocks, H. M. Hughe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3, No.4, pp.243-251, 2008.. DOI: <http://dx.doi.org/10.1007/s10896-007-9148-1>
- [2] L. Liu, M. Wang,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n China: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9, No.1, pp.20-28, 2015. DOI: <http://dx.doi.org/10.1037/fam0000047>
- [3] L. L. Stone, S. H. W. Mares, R. Otten, R. C. Engels, J. M. Janssens, "The co-development of parenting stress and childhoo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Vol.38, No.1, pp.76-86, 2016. DOI: <http://dx.doi.org/10.1007/s10862-015-9500-3>
- [4] H. S. Choi, H. O. Yoon, E. M. Yeon,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0, No.2, pp.495-517, 2016.
- [5] R. R. Abidin,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21, No.4, pp.407-412, 1992. DOI: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6] K. Crnic, C. Low,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p.25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2, pp.243-267.
- [7] E. Hakwoort, H. Bos, F. van Balen, J. Hermans, "Spillover between mothers' postdivorce relationship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Personal Relationships*, Vol.19, No.2, pp.247-254, 2012. DOI: <http://dx.doi.org/10.1111/j.1475-6811.2011.01351.x>
- [8] H. J. Lee, "A Longitudinal Changes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46, pp.115-141, 2014.
- [9] L. G. Anthony, B. J. Anthony, D. N. Glanville, D. Q. Naiman, C. Waanders, S. Shaffer,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Vol.14, No.2, pp.133-154, 2005. DOI: <https://doi.org/10.1002/icd.385>
- [10] Department for Education, *The value for money of children's centre services: Evaluation of children's centres in England(ECCE) strand 5: Research report*, England, pp.38-39.
- [11] K. S. Bang, S. M. Chae, S. H. Park, "Depression, Health Status, and Parenting Stress of Caregivers of Children in Poverty." *Korean Parent Child Health Journal*, Vol.14, No.2, pp.55-61, 2011.
- [12] J. M. Kim, K. J. Kwak, "The Effect of the Parent Variables,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Social Support on Poverty in Early Childhood ."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28, No.4, pp.305-317, 2007. DOI: <https://doi.org/10.1002/icd.385>
- [13] J. A. Hon,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related to behavior problems in low income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14, No.3, pp.355-384, 2010.
- [14] E. J. Lee,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Parenting as a mediator, predictor, and its consequence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18, No.2, pp.21-41, 2011.
- [15] J. A. Park, K. S. Lee, Y. J. Shin, "Effects of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4, No.4, pp.549-566, 2009. DOI:<http://doi.org/10.18205/kpa.2009.14.4.004>
- [16] E. J. Silver, A. M. Heneghan, L. J. Bauman, R. Stein,

- "The relationship of depressive symptoms to parenting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in inner-city mothers of young children",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Vol.10, No.1, pp.105-112, 2006.
DOI: <http://dx.doi.org/10.1007/s10995-005-0024-4>
- [17] E. Reitz, M. Deković, A. M. Meijer, R. Engels,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ing, bes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 Testing bidirectional effects", *Journal of Adolescence*, Vol.26, No.3, pp.272-295, 2006.
- [18] C. Buehler "Parents and peers in relations to early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8, No.1, pp.109-124, 2006.
- [19] A. J. Sameroff, M. J. Mackenzie, "Research strategies for capturing transactional models of development: the limits of the possibl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15, No.3, pp.613-640, 2003.
DOI: <http://dx.doi.org/10.1017/S0954579403000312>
- [20] M. J. Sheehan, M. W. Watson,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maternal disciplining technique and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Vol.34, No.3, pp.245-255, 2008.
- [21] A. K. Albrecht, N. L. Galambos, S. M. Jansso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perception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 panel study examining direction of effec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6, No.5, pp.678-684, 2007.
DOI: <http://dx.doi.org/10.1007/s10964-007-9191-5>
- [22] Y. J. Chun, S. G. Lee, H. N. Kim, "Longitudinal Analysis of Dream Start Service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 Mediating effects of caregivers and family functioning",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1, No.1, pp.233-255, 2013.
DOI: <http://dx.doi.org/10.35151/kyci.2013.21.1.010>
- [23] S. N. Elliott, F. M. Gresham, Social Skill Rating System.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1996
- [24] E. S. Han, *Effects of Social Skills Training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Maste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eoul, Korea, pp.51, 1999.
- [25] K. M. Chung, K. S. Lee, J. A. Park, "Standardization Study for the Korean Version of Parenting Stress Index(K-PSI)",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7, No.3, pp.689-707, 2008.
DOI: <http://dx.doi.org/10.15842/kjcp.2008.27.3.007>
- [26] S. H. Hong, M. S. Park, W. J. Kim,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and Communication with Parents: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1, No.1, pp.129-143, 2007.
- [27] H. C. Choi, M. H. Hwang, Y. J. Kim, "Tes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between Children's Relatedness with Parents and Well-being ",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3, No.3, pp.561-579, 2009.
- [28] M. W. Browne, R. Cudeck,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lif: Sage, 1993, pp. 136-162.
- [29] L. T. Hu,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o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6, No.1, pp.1-55, 1999.
DOI: <http://dx.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30] S. H.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9, No.1, pp.161-177, 2000.
- [31] J. S. Mackler, R. T. Kelleher, L. Shanahan, S. D. Calkins, S. P. Kean, M. O'Brien, "Parenting Stress, Parental Reactions, and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 4 to 10",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7, No.2, pp.388-406, 2015.
DOI: <http://dx.doi.org/10.1111/jomf.12163>
- [32] N. Eisenberg, R. A. Fabes, S. A. Shepard, I. K. Guthrie, B. C. Murphy, M. Reiser,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Vol.70, No.2, pp.513-534, 1999.
- [33] R. D. Conger, M. B. Donnellan,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8, No.1, pp.175-199, 2007.
<https://www.annualreviews.org/doi/10.1146/annurev.psych.58.110405.085551>
- [34] Y. Chang, M. A. Fine, "Modeling parenting stress trajectories among low-income young mothers across the child's second and third years: Factors accounting for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21, No.4, pp.584-594, 2007.
DOI: <https://doi.org/10.1037/0893-3200.21.4.584>
- [35] M. Mulso, Y. M. Caldera, M. Pursley, A. Reifman,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4, No.4, pp.944-956, 2002.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944.x>
- [36] S. Y. Hyun, K. J. Oh,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focused on children's age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5, No.4, pp.673-689, 2010.
DOI : <https://doi.org/10.18205/kpa.2010.15.4.007>

송 미 령(Mi-Ryoung Song)

[정회원]



- 200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2년 1월 ~ 2018년 8월 : 한국
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장

- 2018년 10월 ~ 현재 :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

아동복지, 아동빈곤

홍 승 애(Seung-ae Hong)

[정회원]



- 2004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3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

아동복지, 아동보육